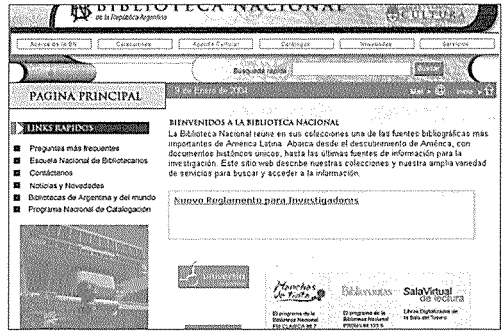


해외도서관 사정

# 아르헨티나 공공도서관 현황 및 도서관정책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de la Republica Argentina) 홈페이지, <http://www.bibnal-edu.ar/>>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는 올해부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해외도서관들의 사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국내도서관들이 더 넓은 지평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해외도서관 사정’ 코너를 신설하였다. 첫 해외도서관 사정은 올해 8월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WLIC)를 개최하게 될 아르헨티나로 정하였다. 본 내용은 (재)한국출판연구소에서 2002년 12월에 출판연구자료로 펴낸 『세계 주요국의 도서관 및 독서 현황 조사 자료집』 중 제9장 ‘아르헨티나의 도서관 및 독서현황(번역가 정창)’ pp. 161-169를 요약한 것이다. (출처) ■ 편집자 주

200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대회를 개최하게 될 아르헨티나는 4천여 개의 도서관<sup>1)</sup>이 존재한다. 1810년에 설립된 국립도서관을 비롯해서 7개의 주립도서관, 2백여개의 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대중도서관 등으로 분류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공공도서관에서 특이한 유형은 전체 도서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대중도서관(biblioteca popular)의 존재와 위상이다. 대중도서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는 일반적인 공공도서관과 달리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비정부기구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광활한 지형적 요인과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발전해 온 특징을 갖고 있다.

## 1. 공공도서관 현황

아르헨티나의 최초의 대중도서관은 1866년에 산 후안(San Juan)에서 독서클럽 형태로 문을 연 ‘플랭클린도서관(Biblioteca Franklin)’이다. 대부분의 대중도서관은 CONABIP(Comisi Nacional Protectora de las Bibliotecas Populares)라는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대중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의 구성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며, 자유롭고 폭넓은 문화활동과 독서활동을 제공하는 문화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오늘날 국토면적 380만 평방미터에 약 3,300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대중도서관 현황<sup>2)</sup>은 다음과 같다.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에 2000년에 등록된 대중도서관은 1,921관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482관, 산파페 250관, 포르도바 지방 184관 순으로 나타난다. 같은 해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가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배분한 도서관수는 총 246,308관이다.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는 자국의 광활하고 복잡한 지형적 요인을 감안하여 31대의 이동도서관용 차량과 1척의 이동도서관용 선박을 운용중이다.

1) 아르헨티나 도서관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Biblioteca Escolar), 특수도서관(Biblioteca Especializada), 입법도서관(Biblioteca Legislativa), 국립도서관(Biblioteca Nacional), 공공도서관(Biblioteca Pública), 대학도서관(Biblioteca Universitaria)  
 2) 아르헨티나 대중도서관 현황은 여러 자료에 의해 간헐적으로 수집 정리되는 한계에 부딪힌다.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에서 부여한 대중도서관 등록번호를 감안하여 그 통계가 생략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 항목에 통계가 누락되어 있으며, 도서관 관계당국의 자료 역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통계가 없다.

## 2. 도서관정책

아르헨티나의 대중도서관 정책은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CONABIP, <http://www.conabip.gov.ar>)”에서 일괄적으로 시행·관리한다.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는 대중도서관에 대한 법률 419호(1870)년과 새로운 법률 23351호(1986년)에 의해 명칭을 부여받은 ‘대통령직속문화국’ 소속 기구이다. 국가예산과 ‘대중도서관을 위한 특별기금’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합하여 각 도서관에 배분하고 관리하는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첫째, 대중도서관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재정 지원관리 업무를 맡는다. 둘째, 대중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정부조직을 비롯한 국내의 행정단위 조직과 국제 조직 그리고 비정부조직의 협력을 구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구체화시킨다. 셋째, 대중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에 관한 정보와 문서들을 수집하고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내놓는다. 넷째, 대중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에 관한 정보와 문서들을 수집하고 현실에 적합한 대안을 내놓는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다각적인 후원을 증대시키고 실현시킨다. 여섯째, 전 국민을 상대로 도서관의 효용성을 이해시키고 책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는 2000개의 대중도서관과 함께(AI 2000 con 2000 bibliotecas populares)’는 일종의 ‘대중도서관 확충’ 운동으로, 기존의 학교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1992년에 1천여 개관이었던 대중도서관이 1,900여 개관으로 그 수효가 늘어난 것은 집중적인 홍보와 지원 덕분이다. 신설 도서관이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에 등록되면 대중도서관 고유번호와 함께 5백 권의 기본 도서를 받고,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지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대중도서관에 필요한 책·비디오·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 사서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장학교육, 독서장려에 필요한 후원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도서관 사서와 관리자의 자질과 능력 배양 과정(Capacitación de bibliotecarios y dirigentes)’은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대중도서관의 질적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도서관 종사자 대상 업무 향상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와 각 지방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며,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사서 장학기금’이나 ‘대중도서관 국내회의’ 등을 통한 국가기구 차원의 후원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3년, 교육시간은 매주 20시간이다.

‘플랜, 책과 독자의 접근(Plan de acercamiento del libro al lector)’은 일종의 독서장려 프로젝트로 국민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용 이동차량이나 선박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동도서관의 역할을 맡게 될 이동차량은 기본적으로 5백권의 도서와 50개의 비디오를 구비하여, 특히 오지나 도서지방까지 그 활동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아동용 열람실 확보 플랜(Rincones y salas infantiles en las bibliotecas populares)’은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아동용 열람실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도서관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국가플랜(Plan Nacional de Comunicaciones para Bibliotecas Populares)’은 ‘대중도서관국가보호위원회’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정보화 추진사업이다. 이 플랜은 ‘정보사회를 향한 국가플랜(PSI : Programa Nacional para la Sociedad de la Informaci)’과 함께 하며, 대중도서관을 3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리 : 심효정, shjcap@hitel.net]